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속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HCMC

보도자료

[자료문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028-5417-9021

교장 신선호

‘Glonacal Leader를 향해 한 걸음 더’ -SAIMUN 2019-

SAIMUN 2019(호치민시연합 모의유엔) 행사가 지난 2019년 3월 23일(토)부터 3월 24일(일)까지 EISHCMC(European 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 City)의 주최 하에 1군에 위치한 Sheraton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ISPP(프놈펜국제학교)를 비롯한 호치민시 소재 12개 학교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A Look Backwards, A Step Forward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재 반환, 암호 화폐, 성소수자의 경제적 위상,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 나라의 대사 자격으로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는 Deputy Chair로 선발된 11학년 이윤하 학생과 4명의 Press 팀을 포함한 총 4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중 38명의 학생들은 General Assembly, Human Right Council, Security Council과 같은 8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영국, 슬로바키아, 콩고, 아프가니스탄 등 UN 소속 여러 국가의 대표(delegate)로서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그 중 10학년 주시환, 11학년 안규태 학생이 가장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토론자로서 활약한 점을 인정받아 ‘Best Delegate’으로 선발되었다.

이번 SAIMUN은 23일과 24일 양일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쉼 없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날 각 위원회 별 이슈에 대한 자신이 속한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opening speech를 시작으로 입장을 함께 하는 나라들과 결의문을 도출하는 lobbying session을 거쳐 작성된 결의문에 대한 수정과정에 대한 토론, 그리고 결의문 가결과 부결에 이르는 과정을 치러냈다. 본교 신선호 교장과 오준식 교감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각 위원회를 방문하여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교 모의 UN 행사에 대한 계획과 마련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본교 KISMUN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SAIMUN에서 ‘Best Delegate’로 지명된 안규태 학생은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위원회에서 콩고의 대사로 활약하였으며, 그는 인터뷰에서 ‘SAIMUN이 단순한 토론과 말싸움을 위한 자리 보다 다양한 국제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된 산업 쓰레기 처리, GMO 제품의 확산과 도시계획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탄소 배출 거래제 등의 정책을 제안하여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게 되어 뿌듯합니다. 이번 SAIMUN 행사에서 작년과 다르게 기량이 부족 늘어난 KIS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롭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교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베트남 지역 발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Glonacal한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